

테헤란 심장부 타격: 트럼프의 도박과 호르무즈의 위기

미국의 참수 작전, 이란의 비대칭 반격,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



이란의 토요일은 한국의 월요일과 같다



통상적 전술:
새벽 기습
(Dawn Raid)

Iran
Saturday
=
Korea
Monday



금번 공격:
토요일 오전 9시 30분
(Saturday Rush Hour)

- 대부분의 공습이 새벽에 이루어지는 관행을 깬 ‘출근 시간대’ 공격.
- 가장 번잡한 시내 한복판을 타격하여 심리적 공포를 극대화하고 민간인 피해를 감수한 무차별적 경고 메시지.

단순 군사 시설이 아닌 지휘부 ‘참수’가 목표

타격 목표: 테헤란
도심의 최고 지도자 및
대통령 집무실, 군
수뇌부 시설 집중 타격.

전략적 의도: 지도부를
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
벙커에 고립시켜
지휘 통제(C2) 시스템을
마비시키려는 시도.



미국의 시나리오: 통제 불능을 통한 내부 붕괴 유도



지도부 타격
(Strike Leadership)



지휘 통제 마비
(Paralyze Comms)



민중 봉기
(Civil Uprising)



정권 교체
(Regime Change)

벙커의 딜레마: 미국은 하메네이가 벙커에 숨을 것을 알고도 공격했을 가능성 높음.

목적: 지도부가 벙커에 갇혀 통치 불능 상태가 되면, 이란 국민들이 봉기하여 스스로 정권을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심리전.

미국의 오판 가능성: '반정부 시위' 대신 '성전(Jihad)'

Expectation vs. Reality



**US Hope: Regime Change
(Venezuela Model)**



**Iran Reality: Jihad/Holy War
(12-Day War Precedent)**

과거 데이터 (12일 전쟁): 외부 공격 시 반정부 시위가 중단되고 ‘조국 수호’ 여론이 결집하는 경향.

현재 여론: 반체제 주민들조차 외세의 본토 공격에 반발하며 국론이 통일될 가능성 존재.

이란의 보복 시나리오: 비대칭 전력의 가동



- 미군과의 전면전 대신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주는 방식 선택 유력.
- 가장 치명적인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 교란과 아랍 국가 석유 시설 타격(최후의 수단).

호르무즈의 공포: 봉쇄가 아닌 ‘교란’만으로도 충분하다



- **지리적 우위:** 이란의 긴 해안선에서 언제든 기습 가능.
- **전략의 핵심:** 해협을 물리적으로 막을 필요 없음. 유조선 피격 공포를 조성하여 보험료 급등과 항행 거부를 유도하는 전략.

다윗과 골리앗: 항공모함도 막기 힘든 ‘벌떼 작전’



미 해군 구축함 (US Destroyer)

Max ~4 Ships Available
High Cost / Low Agility



- 미 해군은 중국 견제와 항모 호위로 인해 호르무즈에 투입 가능한 구축함이 4~7척에 불과.
- 수백 척의 무장 고속정이 유조선을 포위하거나 나포할 경우 물리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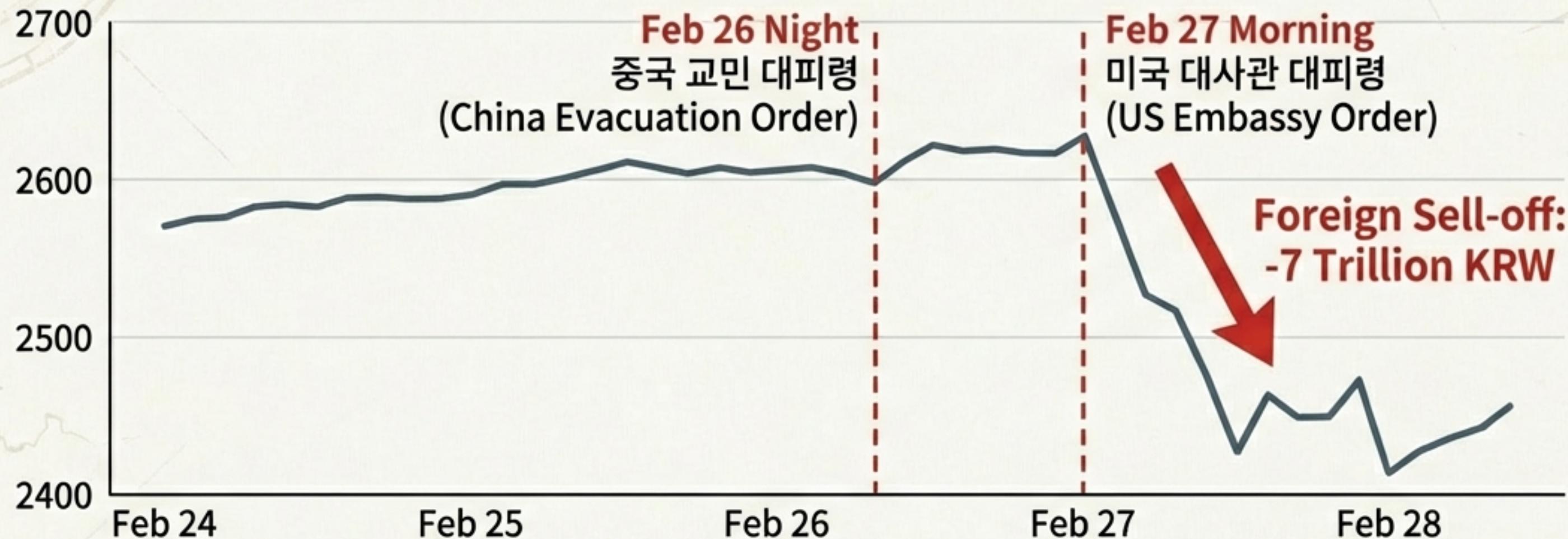
보이지 않는 위협: 기뢰와 이동식 미사일



- **기뢰(Mines):** 수천 기 보유. 단 한 발의 기뢰라도 발견되면 해협의 안전이 증명될 때까지 모든 운송이 중단됨.
- **미사일:** 해안선을 따라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하여 미군 위성 감시와 타격을 회피.

스마트 머니는 알고 있었다: 7조 원 투매의 비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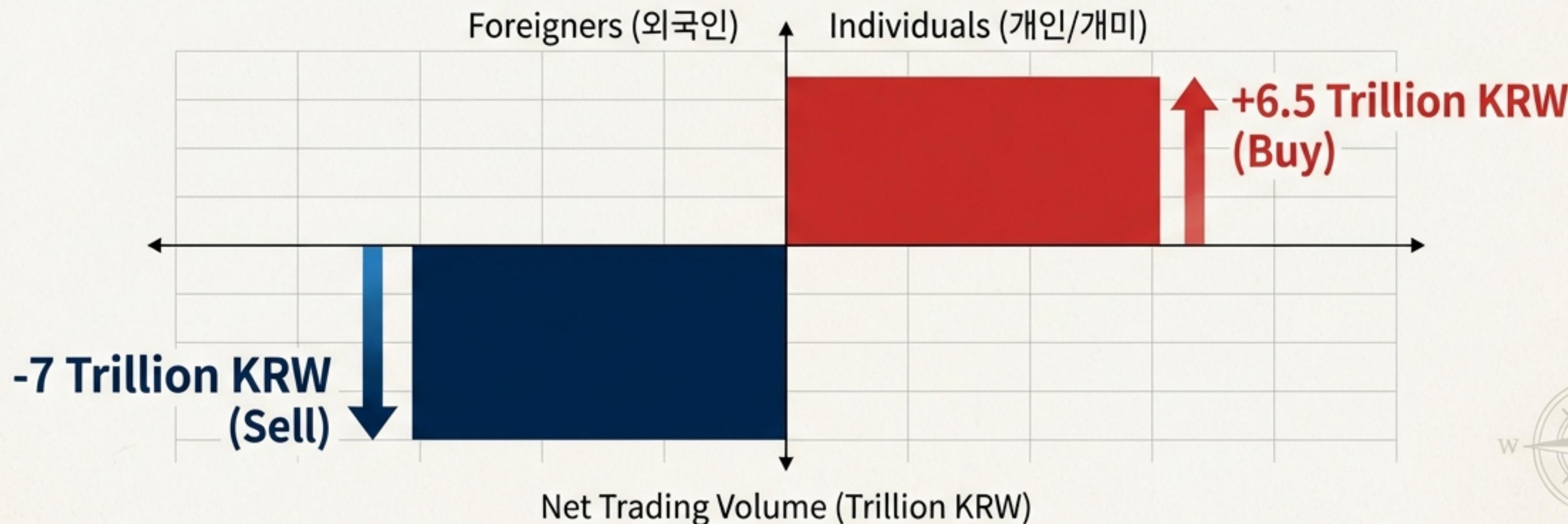
KOSPI Index Trend (Late February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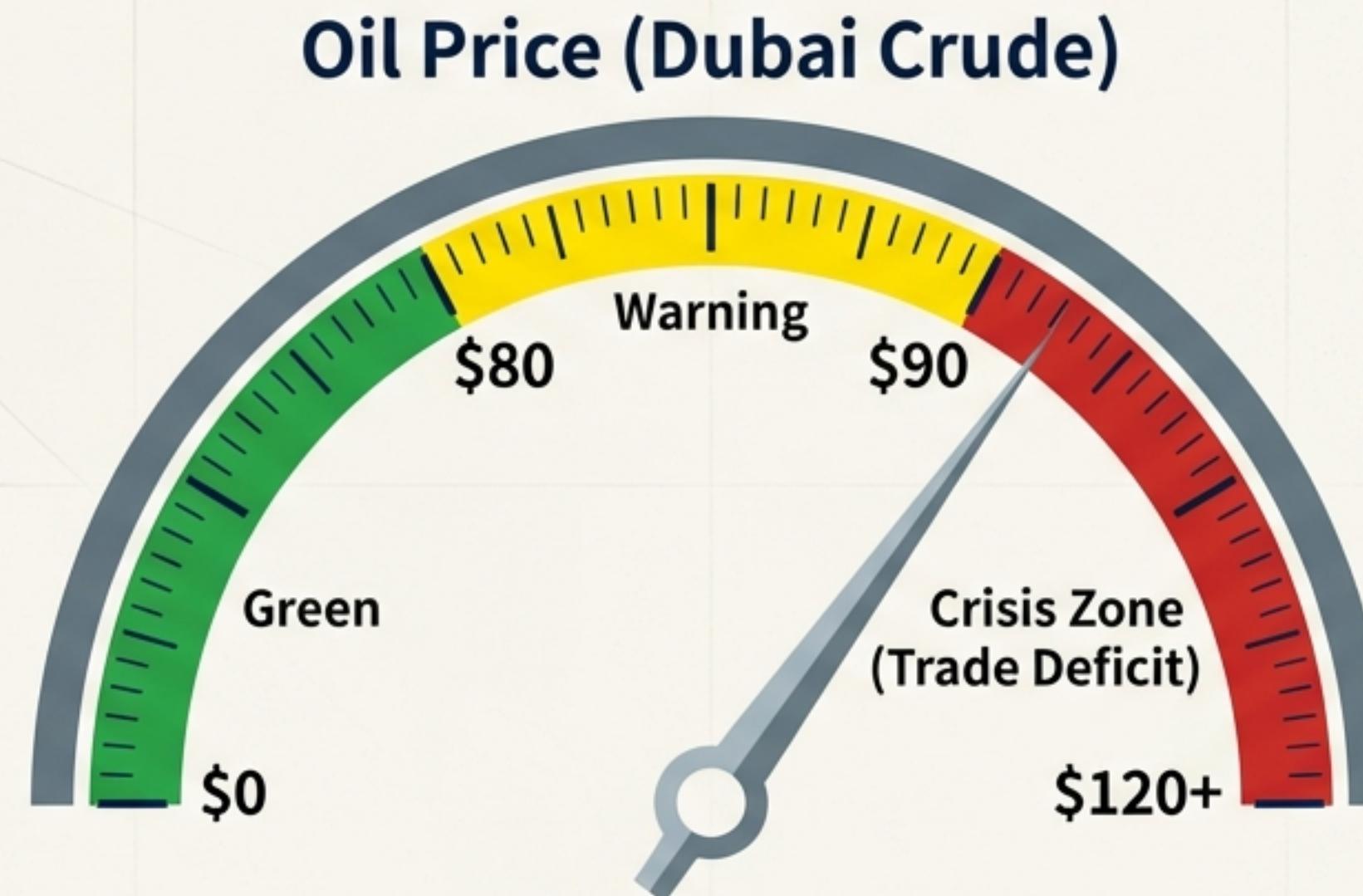
- 2월 27일, 외국인은 한국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인 7조 원을 매도.
- 미국과 중국 정부의 자국민 대피령과 정확히 맞물린 매도 타이밍은 전쟁 리스크를 선반영한 결과.

개미들의 위험한 베팅 vs 외국인의 탈출

- 정보력을 갖춘 외국인은 전쟁 발발 전 탈출했으나,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6조 5천억 원을 매수하며 리스크를 떠안음.
-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 우려.



한국 경제의 급소: 유가 120달러의 공포



- 한 한국 무역 수지는 유가에 극도로 민감.
- 호르무즈 교란으로 유가가 120달러를 돌파하면
무조건적-인 무역 적자와 경제 위기 직면.

결론: ‘전쟁(War)’이 아닌 ‘전투(Combat)’의 장기화 대비



- 미국은 이미 수주 간의 작전을 예고(Reuters).
-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, **유가 폭등과 증시 변동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**.